

특집 복수로서 연구자와 방법론, 현장을 재탐구하기

## 지리학 현장연구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

박사과정 여성연구자의 위치성과 권력 관계\* \*\*

Feminist Reflection on Geography Fieldwork:  
Positionality and Power Relations of Female Doctoral Student

김수정\*\*\*

본 연구는 연구란 절대적이며 객관적이기보다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 연구의 일 부분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면서 수행한 현장연구(fieldwork)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전히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연구자를 당연시하고 교육·훈육하는 관행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 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항상 한 발 떨어져 중립을 지키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연구에 개입하는 주관적이며 부분적인 주체가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경계를 넘나들고 연구자와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 맺기를 수행하며 연구 과정에 개입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5736).

\*\* 감사의 글: 개인의 경험과 고민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특집호를 기획하고 함께해 주신 여성주의 공간연구 모임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모임에서 함께 논문을 읽고 '현장에 홀로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 글을 쓸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안을 작성하고 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해주었던 이지선, 장유정, 정예슬, 최혜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이 글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Fellow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jeongkim0108@gmail.com).

하는 능동적 주체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발언이 '연구자'가 세운 연구의 목표나 가설에 부합하는 적절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면담이 절실한 연구자'의 상황을 이용해 면담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오히려 연구자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셋째, 엄밀한 현장연구를 거쳐 논문과 출판물로 재현되는 지식 생산의 과정이 탈체현적이며 객관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연구자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종의 환상이자 신의 속임수라 할 수 있다.

주요어: 위치성, 현장연구, 경계, 권력 관계, 자문화기술지

## 1. 서론

그동안 지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연구자가 “좋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서 멈춰서야 하며 연구 대상은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고 데이터로 가공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영민 외 역, 2011: 59)”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1970년대까지 연구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긍정은 지리학 연구에서도 만연해 왔다(Guelke, 1974). 이들은 ‘수동적인 연구의 대상들과 연구 과정을 모두 통제하는 전능한 전문가로 연구자를 상정함으로써, 올바른 훈련과 적절한 현장에서의 태도를 가진 학자는 다른 학자와 동일한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Moser, 2008). 이들의 관점에서 연구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몸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정신적 산물이며, 어떠한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탈체현(disembodiment)’적인 가치와 연결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자기성찰은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것,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자기기술이 과연 연구 주제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Campbell, 2002, Coffey, 2002; Katz, 1994; Widdowfield, 2000).

그러나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이 과학은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과학적 지식

이라는 것도 특정한 위치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둔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것처럼(박경환 외 역, 2015: 220; Fisher, 2015; Hopkins, 2007; Moser, 2008; Rose, 1997), 사회과학, 특히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실제 연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 관찰자로서 연구자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연구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에게 내부자(insider)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낯선 집단에 대한 현장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편견으로 인해 해당 집단의 문화에 대한 침입자(intruder) 혹은 외부자(outsider)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다(박순용, 2006). 질적 연구 수행의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사람이 될 때, 특정 집단의 경험을 분석하려고 할 때 연구자는 필연적으로 연구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김성경, 2016).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 낯선 장소, 낯선 상황의 이해 사이에서 연구 대상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질적 연구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의 질적 연구들은 연구자를 세계를 관조하는 절대적 지위의 조망자로 보는 시각, 연구 대상으로부터의 탈체현,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기존의 가정을 비판한다(England, 1994; Moser, 2008). Haraway(1988)는 먼 곳에서 떨어져 관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일 뿐이며 ‘신의 속임수(God’s trick)’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히려 연구의 일부로서 연구자의 존재를 강조하고,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반성과 편견을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미시적 맥락에서 연구 대상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드러내는 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박순용, 2006). 이는 유사하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Crang and Cook, 2007). Cope(2002)가 “우리는 지식의 생산과 해석에 항상 관여하고 있으며, 지식 생산은 가치중립적이거나 선입견 없는 과정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박경환 외 역, 2015: 220), 연구자의 정체성과 실체는 일상생

활이나 연구와 무관하게 허공 위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구자가 놓여 있는 육체적·정신적 특성과 연구자를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연구가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영미권 지리학계에서도 연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개인적인 구술의 형태로 기술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Brisbois and Almeida, 2017; Caretta and Jokinen, 2017; Fisher, 2015; Ganga and Scott, 2006; Kusek and Smiley, 2014). 특히 이러한 경향은 페미니스트 지리학, 사회지리학 및 문화지리학 연구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이들은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자신의 성, 젠더, 연령, 계급, 민족성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지식은 항상 부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Haraway, 1988; Rose, 1997). 특히 Rose는 이러한 과정을 ‘위치의 정치(politics of location)’로 개념화하면서 연구자(혹은 지식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젠더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이 결합된 복수의 권력망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정현주 역, 2011: 316).

그동안 영미권, 그리고 한국 여성주의 진영에서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제기되어 왔으며(김현미, 2008; 이나영, 2017; 이종훈, 2012; Haraway, 1988; Mcdowell, 1992), 이에 대한 이론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합의가 되어온 과정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연구에서 연구자가 마주하게 되는 연구 설계와 현장의 괴리,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 관계에서 연구자의 감정 등이 변화하고 영향 받는 지점들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과 경험이 실제 현장연구 윤리와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란 절대적이며 객관적이기보다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모두 연구의 일부분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면서 수행한 현장연구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전히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연구자를 당연시하고 교육·훈육하는 관행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구자가 가

지고 있는 위치적 특성이 연구 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사 단계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위치성, 권력 관계,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자의 정체성과 실천이 어떻게 연구자-연구참여자의 젠더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이 결합된 복수의 권력망 속에서 작동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특성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 ‘여성’ 연구자로서 나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방법인 성찰적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사용해 기술하고자 한다.

## 2. 연구에서의 자기성찰과 위치성

여성주의 인식론은 과학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으며, 객관적인 형태의 지식을 담지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이 여성주의적 경험과 관점을 배제한 남성중심적 인식론이라 비판하며 이에 도전해 왔다(Moss, 1993: 49). 이 과정에서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은 성찰, 위치성, 차이, 재현에 관한 논쟁을 벌여왔으며(Nast 1994; Staeheli and Lawson 1994; McDowell, 1999), 동시에 물질적·정치적 투쟁에 참여하면서 성찰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왔다(England, 1994; Katz, 1994; Mountz, 2002; Nagar, 2002; Radcliffe, 1994; Staeheli and Nagar, 2002; Wolf, 1996). 특히 Rose(1997)는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지식은 특정한 환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연구자인 척해서는 안 된다는 포스트식민주의 그리고 여성주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 결과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에게 지식 생산의 정치와 연구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해졌고, 연구참여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입장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이를 연구 내용에 써내려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McDowell, 1992: 409; Moss, 1993: 48; Nast, 1994: 59).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연구 질문과 데이터 수집 방법이 연구자와 연구참여

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어떻게 내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Moss 2002; Bondi et al. 2002). 이러한 논쟁 속에서 ‘성찰’의 개념이 권력 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중심이자 공평하고 중립적인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권력 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연구의 성찰은 자기, 과정, 재현에 대한 성찰과 연구 과정의 권력 관계와 정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료 수집과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Kobayashi(1994)는 연구 과정에서 젠더와 인종과 관련한 억압적 개념이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연화(naturalized)’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찰은 연구자의 자기비판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구자에 의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연구참여자의 투명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연구자-연구 참여자 모두 동등하게 지식 생산의 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실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상황에 따라 연구참여자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거나 더 적은 권력을 갖기 때문에, 연구에서 주도권을 갖기도 하고 오히려 연구참여자가 연구 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권력 관계와 관련된 논쟁은 내부자-외부자 역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대해 ‘내부자’가 되는 것은 일종의 성배처럼 여겨지고 ‘외부자’가 되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Mullings, 1999),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Dyck, 1993; Miles and Crush, 1993; Kobayashi, 1994).

이러한 내부자-외부자 역학과 관련하여 Mcdowell(1992: 413)은 ‘위치(position)’와 ‘위치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위치성(positionality)’이라는 용어는 비판적인 현장연구를 지향하는 분야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개념이다. 즉,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위치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연구자의 위치는 연구 대상과 분리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정현주, 2015). Mcdowell(1992, 1997)을 비롯한 많은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탐구함으로써 복잡한 권력 관계의 망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교화해 왔으며, 지식 생산의 정치를 이러한 '위치'의 지형에 귀속시키곤 한다. 박경환(2007)은 사람들은 집단적 혹은 개인적 수준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회관계의 교차점에서 살아가고 실천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치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라는 범주의 외부와 내부는 항상 주변화되고 억압된 차이들과 공존해 왔음을 드러내는 해방적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의 자기성찰과 위치성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중립성, 분리 및 거리를 요구하는 과학적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 연구에 대한 비판의 주요 지점 중 하나였다. 또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성찰'하는 것이 일종의 편향된 시각(navel-gazing)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Peake and Trtoz(1999: 37)가 주장한 것처럼 연구자가 자신의 위치나 주체성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완전히 분리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현장 '연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존중과 인정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좋은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3. 연구 방법 및 과정

#### 1) 연구 방법 및 대상으로서의 자문화기술지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친 로스앤젤레스 현지 조사 동안 연구자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의 방법으로 풀어쓴 결과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객체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이에 기초한 맥락적 반응에 대한 관심은 문화기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자문화기술지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가 연구 대상을 타자화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Geertz, 1973; 1988;

Clifford and Marcus, 1986). Geertz(1973)나 Clifford and Marcus(1986) 등은 인류학에서 타문화의 역동을 객관적인 실체로 재구성하여 전달하려는 전통적인 문화기술지의 연구 방법을 비판했다. 특히 Geertz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는 주관성을 학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Geertz(1973)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맥락적·상황적 조건과 더불어 가능한 한 구체적인 현장의 언어로 묘사하는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주장했다. 이는 행위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얇은 기술(thin description)에 그치지 않고, 행동과 발화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 위치 지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진공인 상태에서 경험을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의 목소리와 성찰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문화기술지는 연구 주체이자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며, 나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얻고 고찰하는 방법이다(Chang, Ngunjiri and Hernandez, 2013: 18). 저자의 목소리와 성찰을 강조하는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경험, 성찰을 비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양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영천·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자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현상을 살펴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교수나 동료, 학문 제도에 대한 비판, 내부고발자의 역할 등과 같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지만(김선기·이상길, 2014), 연구자가 연구란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Cook et al. 2005).

Reed-Danahay(1997)는 자문화기술지의 유형을 크게 원주민, 소수자 문화기술지(native ethnography, minority ethnography)와 성찰적 문화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로 구분하였다. 원주민, 소수자 문화기술지는 집단의 내부자가 문화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소수집단의 정체성 또는 소수자-주류집단 간의 권력 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하며, 성찰적 문화기술지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자의

자기성찰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삶의 경험을 거시적인 맥락과 연결 지어 그 의미를 분석한다.

이 글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글쓰기 방식과는 다소 다르게 현장연구 과정에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했던 연구자 ‘나’를 화자로 상정하여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한, 일종의 성찰적 (자)문화기술지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성찰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질문들에 대해 연구자는 성찰적인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왜 이 지점에서 판단을 멈추었는가?”, “보다 깊이 성찰을 이어가거나 멈추는 데에 어떤 관심이 작용하였는가?” 같은 것들이다(Midgley, 2008). 연구자는 성찰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한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경험이나 사례에 대해 최대한 두껍게 기술(thick description)하고, 연구자로서 판단 중지(epoche)<sup>4)</sup>를 하기도 했다.

## 2) 연구 설계와 면담자 섭외 과정에서의 연구자 ‘나’

모든 지식들이 항상 상황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계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성에 의해 생산된다(Cook et al, 2005)는 관점에서, 연구자의 위치성과 상황은 연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박경환 외 역, 2015: 222).

본 연구에서 연구 주체이자 대상인 ‘나’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현장연구를 선택한 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장연구를 수행했을 당시의 ‘나’는 ‘한국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연고가 없는

4) 이는 고대 그리스어로 ‘정지’, ‘중지’, ‘보류’라는 뜻을 가진 에포케(Epoche)에서 유래한 것으로, 후설의 현상학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제화한 반성적 방법으로서의 개념을 의미한다. 후설이 주장한 판단 중지의 개념은 사물에 대해 기존의 과점, 선입견, 습관적 이해를 배제하고 직관해 보자는 것이다. 현상학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입장, 상태,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가장 좋다거나 나쁘다는, 또는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였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현장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지리학 전공’의 ‘20대’, ‘여성’, ‘한국인(아시아인)’, ‘대학원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의 개인적 경험은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학교와 학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해외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답사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답사 경험은 나의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지역이었던 로스앤젤레스 패션지구(Los Angeles Fashion District)를 처음 방문한 것은 학부 2학년 과정을 막 마쳤을 때인 2008년 12월이었다. 당시의 현장 답사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패션지구의 상당 부분을 한국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곳이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이라는 단편적인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석사과정에서 입학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학부 해외 답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멕시코 중서부에 위치한 만사니요(Manzanillo) 일대의 현장연구를 수행하면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의 연결성,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아가는 한인 이주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난 뒤,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를 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나는 멕시코와 한국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학부 답사를 통해 접한 바 있는 로스앤젤레스 패션지구의 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한인 이주자와 민족경제(ethnic economy)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예비 현장 조사<sup>5)</sup>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패션지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촘촘히 얽혀 있어 한인 이주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패션지구라는 공간을 세밀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맞닥뜨렸다. 미국의 서부 개척, 그리고 영화 산업 성장과 함께 등장한 패션 지구는 다양한 이주자 집단의 유입으

5) 2015년 8월에 실시하였다.

로 성장해, 약 120년 동안 각 민족이 주도하는 변화의 장이었다. 이는 중저가 의류산업이 중심이 되는 패션지구의 특성상 저임금 이주 노동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패션지구 생성 초기에는 미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의 민족 비즈니스 공간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한인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인 의류 제조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유대인 집단은 건물을 소유한 지주(landlord)들이 되었다. 이후 패션지구로 라티노(Latino)<sup>6)</sup>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패션지구는 유대인-한국인-라티노라는 세 집단이 갈등과 경쟁, 타협과 협상이라는 다양한 관계를 맺는 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김수정·이영민, 2017). 이에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인 이주자에서 패션지구 내의 주요 이주자 집단(유대인, 한국인, 라티노)들로 확장하게 되었다. 또 의류산업의 세계화로 인해 패션지구의 영향력이 미국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중남미와 아시아로 확대되면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과정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패션지구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와 로컬 안에서 벌어지는 한인-라티노-유대인 간의 민족관계로 연구 주제를 구체화했다.

연구 주제와 연구 범위, 연구 내용 등을 어느 정도 결정한 후 2015년 8월에 약 2주 동안 파일럿 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면서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의류협회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주변의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의 소개로 로스앤젤레스의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소개받았다. 그 외에도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와 현지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한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면담을 수행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경은 어느 정도

6) 라티노(Latino)는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계열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흑인, 백인, 아시아인과 같이 인종적으로 분류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히스패닉(Hispanic)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본인들을 지칭했던 표현인 '라티노'를 사용하고자 한다.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연구 기간 동안 총 53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여 한인 27명, 라티노 23명, 유대인 3명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한인의 경우 면담 참여자 숫자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sup>7)</sup> 시민단체를 통해 섭외했던 라티노 노동자들은 중장년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sup>8)</sup> 유대인의 경우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나 단체를 통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3명만 면담 요청에 응했다.

#### 4. 현장연구에서 경험하는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과 권력 관계

연구 당시 20대 아시아인(또는 한국인), 미혼, 여성 연구자였던 나의 위치는 면담 참여자의 특성과 수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맥락 속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개입되는 연구자의 성별, 인종,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들로 인해 면담 대상자들의 경계의 내부와 외부로 넘나드는 상황을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처해 있는 위치적 특성과 이에 얽혀 있는 관계들을 상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현장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연구자의 외양, 민족성, 인종이 면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경험, 제한된 체류 시간, 나이, 성별이 관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

7) 한인의류협회 관계자가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다고 했음에도 실제 인터뷰에 응한 한인 27명 중 17명은 남성 면담자였다. 면담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연구자가 20대의 미혼 여성이어서 면담에 응했다거나, 여자 사장님들은 다들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바빠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8) GWC의 스테프를 통해 실제 봉제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경우 시민단체의 일에 동참할 경우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도 봉제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면담 중간과 면담 종료 후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언어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가 대두되는 모습을 보였다.

### 1)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서 변화하는 연구자의 위치

2016년 8월 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뒤 처음 면담에 응했던 사람은 한인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현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한국에서 소개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연구자가 같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의류제조업체나 봉제공장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위해 따로 시간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들은 연구자가 인터뷰에 응해주어 고맙다고 하자 "같은 한국인끼리 서로 도와야죠"라든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안쓰럽다"고 말하며 연구자를 본인들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내부자(insider)'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질문 내용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답했으며, 일부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기도 했다. 이들은 패션지구 내의 다른 민족 집단들(라티노,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연구자 또한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응답에 동의하고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티노들의 경우는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인터뷰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한인의 의류제조업체 사장들은 내가 공장을 방문하려는 것에 대해 다소 난색을 표했고, 이 과정에서 한인 타운 내 노동자 센터인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KIWA)의 도움을 받아 로스앤젤레스 의류봉제업 노동자 지원 단체인 Garment Worker Center(GWC)와 접촉할 수 있었다.

GWC의 매니저였던 Marissa에게 연구 주제와 상황을 설명한 뒤 라티노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연구자'로서의 나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

목표에 대해 설명했을 때 라티노들은 나를 집단의 철저한 ‘외부자(outsider)’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연구자의 외양, 국적, 한국식 억양이 들어간 영어 발음을 듣고 연구자의 인터뷰 시도를 외부인이 경계를 훌쩍 뛰어넘으려는 시도로 보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부 노동자들은 매니저를 통해 “당신이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된다”라며 연구자를 한국인 고용주들에게 면담 내용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스파이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이들과 일종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인터뷰 낱자를 잡는 과정에서 GWC와 라티노 노동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임금 도둑질(wage theft) 시위를 준비하고 패션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권했다. 평소였다면 별다른 고민 없이 시위에 참석했겠지만, 당시에는 연구자로서 연구참여자와 적정한 수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Gordon, 2005)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나는 ‘개인’으로서는 그들의 활동에 공감하지만, ‘연구자’로서는 연구참여자와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 소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방식<sup>9)</sup>으로 나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애매한 거리두기 전략을 선택했다.

이후 꾸준히 노동자들의 주말 모임<sup>10)</sup>에 참여하고, 소극적인 형태로나마 이들의 작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라티노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연구자의 상황을 이해해 주어 첫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들은 다시 한 번 “비밀이 보장”되고, “한인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싶어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인 고용주와 라티노 노동자라는 일상생활에서의 권력 관계가 연구자와 면담자의 인종-민족적 특성에 그대로 적용되어, 면담 내용이 유출될 경우 자

9) 시위에 쓰일 피켓이나 문구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시위 당일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10) 앞서 언급한 시위와는 별도로, GWC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라티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언어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단 라티노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자,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sup>11)</sup>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면담 대상자들과 친밀감을 쌓으려는 시도로 연구자가 멕시코의 태평양 항구도시 만사니요를 사례로 석사논문을 썼고 6개월 동안 콜리마(Colima)에 머물면서 멕시코 곳곳을 여행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언급하자, 라티노 노동자들은 나에게 호기심과 친밀감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호의적인 태도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유대인들은 연구자가 현장연구를 하던 시점에는 이미 대부분 의류업체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주(landlords)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패션지구 내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면담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현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접촉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단 3명의 연구참여자들만을 섭외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단체, 그리고 유대인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유대인 단체에서는 연구자의 이력서와 연구 배경을 설명한 서류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은 “유대인들은 사업적인 이유가 아니면 절대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뷰 가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유대인과 타 집단과의 관계는 참여자 3명<sup>12)</sup>과의 면담 내용을 제외하면 유대인 의류업자나 부동산 소유주들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한인 연구참여자들이나, 학계의 연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현할 수밖에 없었다.

3명의 유대인들 중 한 명은 우연한 기회로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지

11) 물론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연구자에 대해 적대감 혹은 무관심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면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의 면담을 멀찍이 떨어져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12) 면담자 3명 중 1명은 후술할 유대인 의류업체 운영자를 통해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귀국 후 유대인 단체에서 인터뷰 요청에 응하겠다고 연락이 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가 끝나가던 11월 말 무렵 GWC에서 면담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던 나를 한 옷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네며 붙잡아 대화를 하게 된 것이 면담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탈리아계 유대인이며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아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마침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이었다며 흔쾌히 면담에 응해주었다. 유대인 의류업체 사장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패션지구의 1세대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연구자를 “고등교육을 받은 2세대 한인”<sup>13)</sup>으로 바라보면서 자신과 동일한 계층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1980년대 패션지구에서 일했던 ‘시끄럽고 냄새나는’ 한인 1세대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적대감에 대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 2) 연구자-연구 대상자의 권력 관계와 연구자의 취약성

연구 대상자는 단순히 데이터로 가공되는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관계 맺기를 수행하게 되며, 그 안에서 면담의 주도권과 흐름을 둘러싼 연구자-연구참여자 간의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Geiger, 1990; Herod, 1993; Warren, 1988).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발언이 ‘연구자’가 세운 연구의 목표나 가설에 부합하는 적절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면담이 절실한 연구자’의 상황을 이용해 면담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오히려 연구자를 통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Miles and Crush, 1993; Kobayashi and Peake, 1994).

연구자가 ‘지리학박사 수료생’으로 패션지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지리학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

13) 이 사람과 본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한국 국적이며 패션지구를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나이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계속 연구자를 ‘2세대 한인’으로 지칭하였다.

다. 인터뷰에 응했던 많은 사람들은 연구자가 ‘지리학’ 전공이라는 데에 상당한 호기심을 보이곤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자가 패션이나 의류학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했는데, 연구자가 인문지리학 전공임을 밝히자 “지리학에서는 대체 여기서 뭘 연구해요?”라든가 “지리학에서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에게 지리학이란 ‘풍수지리’ 혹은 ‘자연지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인문지리학 전공자인 연구자에게 강한 호기심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한인 신문에서 오히려 연구자를 역으로 인터뷰하기도 했다.

연구자의 인종, 국적, 민족성에 따른 차이와 함께 ‘여성 지리학 연구자’라는 지위는 서로 다른 그리고 변화하는 권력의 역학 속에 놓이게 된다. 연구자는 박사과정 수료라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말미암아 연구 과정에서 면담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일종의 시선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이영민 외 역, 2011: 66).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들은 ‘연구자’인 내가 본인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자 연구 과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면담 과정에서 주도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다(England, 1994; Smith, 1988). 이들은 연구자를 항상 선생님 혹은 박사님 되실 분으로 칭하며 존중하는 한편, 연구자가 던진 질문에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면담 시작 전에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연구참여자들이 면담 시작 전 “듣고 싶으신 얘기가 뭐예요?”라고 묻거나 인터뷰 말미에 “원하시는 대답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본인의 구술이 연구자에 의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특별히 원하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하며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으나, 이들은 “한국에서 혈혈단신으로 조사하러 온 대학원생에게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것”이 연구참여자로써 본인들의 의무라고 여겼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나는 연구 목적을 사전에 밝힘으로써 응답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불안감과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

에서 딜레마에 빠져(박순용, 2006) 한동안 면담을 미루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20대 여성 연구자로 재현되는 미성숙함과 권위의 부족, 면담에 대한 절실함은 현장연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취약성(vulnerability)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Caretta and Jokinen, 2017). 특히 연구자가 20대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면담을 마치고 귀국해야 해 인터뷰 대상자가 절실한 학위과정생이라는 점으로 인해 구직자로 오해를 받거나,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연구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England, 1994).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구직자로 오해를 받는 상황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이는 면담이 진행되었던 의류업체 사무실이라는 현장의 분위기와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패션지구 내 ‘의류업체 사무실을 방문하는 20대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선입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면담을 위해 사무실에 앉아 있던 연구자를 보고 “인턴하러 왔어?”라고 물었다. 이후 면담을 하러 온 연구자임을 밝히자, 그들은 바로 존댓말을 하면서 사무실에 오는 20대 여성의 대부분은 인턴 면접을 보러 오기 때문에 착각했다고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사람은 “선생님이 ‘이대 나온 여자분’이라고 들어서 왔다”고 하면서 ‘이화여대 출신’의 ‘여성’이 가진 이미지를 상상하며 연구자 또한 그러한 모습을 재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면담을 빌미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진짜 속내를 듣고 싶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그래야 해요”라는 조언을 하거나 연구자에게 결혼 여부,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연구자에게 결혼 여부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를 물었던 사람은 인터뷰가 끝난 뒤 연구자가 혼자 가기엔 길거리가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며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차 안에서 연구자에게 같이 경치 좋은 바다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시 달리는 차 안에서 면담 대상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인터뷰한 내용

을 전사하고 바로바로 정리하느라 바쁘다고 말한 뒤 정확한 집 주소를 얘기하지 않고 근처 대로변에 내려달라고 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었던 시공간적 제약 또한 연구자의 취약성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의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나 논문 마무리 시기, 학기 일정, 연구보조원 업무, 비자 문제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소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더라도 잠재적인 면담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한 채 침묵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전에 면담을 진행했던 한 인터뷰 대상자가 한인 1.5세대와 2세대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연락을 해왔다. 연락을 한 사람은 만 날 사람들이 의류 사업으로 바쁜 사람들이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마지막 인터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제안을 승낙했다. 코리아타운 내의 한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연구자인 나에게 호기심을 갖고 본인이 자바시장<sup>14)</sup>이라고도 불리는 패션지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게 된 계기나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식사 중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면담에 응한 두 사람은 연구자에게 면담 내용 중 특정한 내용 위주로 연구에 기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면담 내용을 나쁜 쪽으로 해석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

14) 공식 명칭은 로스앤젤레스 패션지구이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자바시장(jobber market)'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자바시장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바(Jobber)'라는 용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래 Jobber라는 용어는 영국 증권거래소의 브로커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일용직을 일컫는 odd-jobber, 그리고 중간도매상을 일컫는 rack-jobber로 나뉘어 사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간도매상인 rack-jobber를 의미한다(김수정, 2018).

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전의 말은 농담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연구참여자가 연구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연구자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한편 처음 인터뷰를 제안한 사람은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들을 위해 술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시선이 닿지 않는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해서 나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나는 식사,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려고 했으나 마치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어떤 말이나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식사가 끝난 후 도망치듯이 그 장소를 떠나왔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당시의 나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처음 느꼈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혼란과 배신감이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들이 연구자로서의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면담 대상자들의 호의를 믿고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와 논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무력감,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망설임을 느끼기도 했다.

나에게 인터뷰를 제안했던 사람은 업계에서 소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추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인터뷰뿐만 아니라 앞으로 쓰게 될 논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장연구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약함이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결국 나는 다음날이면 한국에 돌아가니까 오늘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침묵을 선택했고, 이후 학위논문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관련한 내용은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이라는 간단한 용어로 뭉뚱그려 표현했다.

### 3) 연구의 해석과 ‘번역’의 문제

면담을 마치고 면담 내용과 경험들을 해석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면담 대상자들의 언어를 연구자의 말로 바꾸는 ‘번역(translation)’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언어의 문제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특히 해외 지역을 사례로 한 경우 연구자가 그 지역의 언어에 항상 능통할 수 없으며 이를 통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언어의 개념은 다른 언어에서는 다르게 이해되거나 왜곡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Temple and Young, 2004; Van Nes, Abma, Jonsson and Deeg, 2010).

면담 과정에서 한국인 면담 대상자들과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모두 모국어인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면담 과정에서 의미 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일은 없었지만, 이를 전사(transcript)해 학술적인 글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위논문이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된 면담 내용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영어로 표현하기 애매한 연구자와 면담 대상자의 은유적 또는 비유적 표현이 단순화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로 대체되었다. 가령, 연구참여자의 “이대 나온 여자”라는 발언은 한국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로, 한국인들은 발언의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맥락은 삭제된 채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연구자의 모국어가 한국어였기 때문에 최대한 면담자의 발화 의도를 살려 재현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더 직설적으로 바뀌거나 누락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라티노와의 면담 과정에서는 이러한 번역의 문제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면담의 의미 해석과 표현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문화적 맥락이 다르고 언어 간 번역이 필요할 때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Temple and Young, 2004). 나는 사람들과 스페인어로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했지만, 발언 안에 내포된 세밀한 맥락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면담 날짜가 잡히자마자 인권

법 전공으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던 멕시코계 미국인 학생에게 스페인어-영어 통역을 부탁했다. 그 결과 스페인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노동자들과 수월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나의 발언 그리고 라티노 노동자들의 발언이 스페인어-영어-한국어로 몇 차례에 걸쳐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통역을 진행해 주었던 학생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발화를 일부 정제하여 전달하였으며, 연구자의 질문도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부연설명을 하거나 축약해 면담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령 연구자가 “한국인 사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라티노 노동자들은 스페인어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tonto(a)’나 ‘gato(a)’<sup>15</sup>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섞어 말하기도 했는데, 통역을 해주던 학생은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 “임금이 적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나 “업무 환경이 좋지 않다” 정도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자가 다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되물기도 했지만, 언어의 한계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라티노 노동자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위논문상에 이들의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영민 외 역, 2011: 192).

그동안 사회과학계의 연구 흐름 속에서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중립적인 서술 방식으로 객관적인 글쓰기를 할 것이라 여겨지고, 연구자 또한 자신의 정치성을 최대한 탈각시킨 서술 방식을 지향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면담자의 발화는 그것이 통역되고, 녹음되고, 전사되어 연구자의 말로 번역되는 순간순간에 연구자의 의도와 말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Temple and Young, 2004; Van Nes, Abma, Jonsson and Deeg, 2010). 다시 말해 연구자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연구는 불가능하며, 또 연구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15) 스페인어로 tonto는 바보라는 뜻이며, gato는 고양이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사람한테 했을 경우 암체를 의미하고, 여성에게 했을 경우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논문과 출판물로 재현되는 지식 생산의 과정이 탈체현적이며 객관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환상이자 신의 속임수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면서 수행한 현장연구 경험을 성찰적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해 기술한 글로, 연구자가 지식의 생산과 해석에 항상 관여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정체성과 실천은 연구와 무관하게 허공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이 결합된 복수의 권력망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전히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연구자를 당연시하고 교육·훈육하는 관행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항상 한 발 떨어져 중립을 지키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연구에 개입하는 주관적이며 부분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면담 대상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면담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계층이 다소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면담에 응한 응답자들의 성별도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연구자는 면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개입되는 연구자의 성별, 인종,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들로 인해 서로 다른 국적, 민족성, 성별, 연령대에 속한 면담 대상자들의 경계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상황을 경험했으며 연구자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연구자와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 맺기를 수행하며 연구 과정에 개입하는 능동적 주체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발언이 ‘연구자’가 세운 연구의 목표나

가설에 부합하는 적절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면담이 절실한 연구자’의 상황을 이용해 면담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오히려 연구자를 통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연구자가 20대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면담을 마치고 귀국해야 해 인터뷰 대상자가 절실한 학위과정생이라는 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미성숙함과 권위의 부족, 면담에 대한 절실함은 현장연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취약성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엄밀한 현장연구를 거쳐 논문과 출판물로 재현되는 지식 생산의 과정이 탈체현적이며 객관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번역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종의 환상이자 신의 속임수라 할 수 있다. 면담과 글쓰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발화는 연구자의 언어로 번역되며, 번역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가치관과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 자신, 그리고 현장연구의 경험을 주제로 삼았으며, 지리학계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던 성찰적 자문화기술지의 방법을 통해 현장연구 결과로 생산되는 논문 등이 객관적이라는 환상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성주의 지리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론적인 주장에 비해 경험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론에 그쳐왔던 여성주의 공간론, 여성주의 지리학의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영미권 및 한국의 여성주의 진영에서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연구자 모델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론적인 합의와는 별개로 실제 학계라는 공간 내에서 현장연구를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현장에 던져지는 연구자들이 처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연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방식은 연구자들을 보다 덜 계층적인 권력 관계에 기초한 연구 방법론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설계와 과정 중에 연구자로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그러한 고민들을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간 지리학계에서는 박경환(2009)의 교차성에 관한 논문이 지리학과 페미니즘 연구의 접합을 꾀하며 페미니즘 지리학에 대한 화두를 던지긴 했으나, 논문이 출간되고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여성주의 지리학은 학계 주변부에 머물고 있거나 여성주의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론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김현철·정현주, 2019). 본 연구가 기존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학'을 지향하던 학계의 논의들을 보다 성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 시론으로만 머물고 있는 여성주의 공간론과 여성주의 지리학의 학문적 지평이 보다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원고접수일: 2020년 04월 28일

심사완료일: 2020년 05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06월 08일

최종원고접수일: 2020년 06월 09일

Abstract

Feminist Reflection on Geography Fieldwork:  
Positionality and Power Relations of Female Doctoral Student

Su-Jeong Kim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flect on the fieldwork experience that researcher conducted while writing doctoral dissertation, with the view that researcher should be emphasized as part of both researcher and participants rather than being absolute and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er is not an absolute being that always remains neutral and objective in the process of research. Second, research participants are not passive objects that exist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but are active agents who engage in the research process, performing horizontal or hierarchical relationships with researcher in accordance with their context. In fieldwork, some research participants continue to check whether their remarks are appropriate to meet the goals or hypotheses of the research set by the researcher while some participants attempt to take the initiative in interviews and control the researchers using the situation of the ‘researcher who is in dire need of an interview.’ Third, the argument that the process of knowledge production, which is reproduced in papers and publications after rigorous field research, will be disembodied and objective is a kind of fantasy and god’s trick in that it goes through the process of translating into the language of researcher.

**Keywords:** Positionality, Fieldwork, Border, Power Relation, Autoethnography

## 참고문헌

- 김선기·이상길, 2014. 「어떻게 ‘문화연구자’가 되는가?: 문화연구 전공 대학원생들의 정체화 과정에 대한 탐구」, 《언론과 사회》, 제22권 4호, 95-156.
- 김성경, 2016. 「공감의 윤리, 그 (불)가능성: 필드에서의 연구자의 마음」,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 107-146.
- 김수정, 2018. 「도시경제공간을 둘러싼 장소의 의미 변화: 로스앤젤레스 ‘자바시장(Jobber Market)’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1권 2호, 63-74.
- 김수정·이영민, 2017. 「초국가적 경제공간으로서 다민족 비즈니스의 형성과 이주자집단의 사회공간적 관계: 로스앤젤레스 패션지구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29권 2호, 61-77.
- 김영천·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제19권 5호, 1-27.
- 김현미, 2008.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이론》, 제19권, 276-293.
- 김현철·정현주, 2019. 「여성주의적 공간론: 지리학적 상상력의 선회를 위하여」, 《공간과 사회》, 제29권 2호, 5-13.
- 박경환, 2007.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 역사 지리》, 제19권 3호, 1-12.
- 박경환, 2009. 「교차성의 지리와 접합의 정치: 페미니즘과 지리학의 경계 넘기를 위하여」, 《문화 역사 지리》, 제21권 3호, 1-16.
- 크레스웰, 팀, 2015. 『지리사상사』. 박경환 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순용, 2006. 「연구자의 위치와 연구윤리에 관한 소고: 문화기술지연구를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제19권 1호, 1-29.
- 이나영, 2018.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의 원리: 입장 인식론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4호, 71-99.
- 엡킨슨, 데이비드 외, 2011. 『현대문화지리학』. 이영민 외 옮김. 서울: 논형.
- 이종훈, 2012. 「후설 현상학에서 실증적 객관주의 비판의 의의」,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5권, 35-62.
- 로즈, 질리언,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옮김. 파주: 한길사.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시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제50권 3호, 289-303.
- Bondi, L., H. Avis and R. Bankey. 2002. *Subjectivities, knowledges, and feminist geographies: The subjects and ethics of social research*. Oxford: Rowman & Littlefield.
- Brisbois, B. W. and P. P. Almeida. 2017. "Attending to researcher positionality in geographic

- fieldwork on health in Latin America: Lessons from La Costa Ecuatoriana.” *Journal of Latin American Geography*, Vol.16, No.1, pp.194-201.
- Campbell. R. 2002. *Emotionally involved: The impact of research rape*. New York: Routledge.
- Caretta, M. A. and J. C. Jokinen. 2017. “Conflating privilege and vulnerability: A reflexive analysis of emotions and positionality in postgraduate fieldwork.”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69, No.2, pp.275-283.
- Chang, H., F. Ngunjiri and K. Hernandez. 2013.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CA: Left Coast Press.
- Clifford. J. and G. E. Marcus.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ffey. A. 2002. “Ethnography and self: Reflections and representations.” In May. T(Ed.). *Qualitative research in action*, London: Sage, pp.313-331.
- Cook. I. 2005. Positionality/Situated Knowledge. In Atkinson. D. et al.(Eds.)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London: IB Tauris.
- Cope. M. 2002. “Feminist epistemology in geography.” Moss. P. J.(Ed.) *In Feminist Geography in Practice*, Oxford: Blackwell.
- Crang. M. and I. Cook. 2007. *Doing ethnographies*. London: Sage.
- Dyck, I. 1993. “Ethnography: a feminist method?” *Canadian Geographer*, Vol.37, No.1, pp.52-57.
- England. K. V. L. 1994. “Getting personal: reflexivity, positionality, and feminist research.” *Professional Geographer*, Vol.46, No.1, 80-89.
- Fisher, K. T. 2015. “Positionality, subjectivity, and race in transnational and transcultural geographical research.” *Gender, Place & Culture*, Vol.22, No.4, pp.456-473.
- Ganga, D. and S. Scott. 2006. “Cultural ‘insiders’ and the issue of positionality in qualitative migration research: Moving ‘across’ and moving ‘along’ researcher-participant divides.” *Forum Qualitative Sozial for 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7, No.3, Art.7.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eiger. S. 1990. “What’s so feminist about doing women’s oral history.”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2, No., pp.169-182.
- Gordon. D. F. 2005. Getting close by staying distant: Fieldwork with proselytizing groups. In C. Pole(Ed.). *Ethics and Politics in Fieldwork*. London: Sage, pp.326-345.
- Guelke. L. 1974. “An idealist alternative in huma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64, pp.193-202.
- Haraway, D.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

- 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14, No.3, pp.575-599.
- Herod. A. 1993. “Gender issues in the use of interviewing as a research method.”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45, No., pp.305-317.
- Hopkins, P. E. 2007. “Positionalities and knowledge: Negotiating ethics in practice.” *ACM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Vol.6, No.3, pp.386-394.
- Katz, C. 1994. “Playing the field: questions of fieldwork in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41, No.1, pp.67-72.
- Kobayashi, A. 1994. “Coloring the field: Gender, ‘race,’ and the politics of fieldwork.”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46, No.1, pp.73-80.
- Kobayashi, A. and L. Peake. 1994. “Unnatural discourse. ‘Race’ and gender in geography.”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1, No.2, pp.225-243.
- Kusek, W. A. and S. L. Smiley. 2014. “Navigating the city: gender and positionality in cultural geography research.”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Vol.31, No.2, pp.152-165.
- Mcdowell, L. 1992. “Doing Gender: Feminism, Feminists and Research Methods in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17, pp. 399-416.
- Mcdowell, L. 1997. “Women/gender/feminists: Doing feminist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Vol.21. pp.381-400.
-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idgley. W. 2008. “Searching for gems in the mud: An example of critical reflection on research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edagogies and Learning*, Vol.4, No.1, pp.14-24.
- Miles, M. and J. Crush, 1993. “Personal narratives as interactive text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migrant life-historie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45, No.1, pp.84-94.
- Moser, M. 2008. “Personality: a new positionality?.” *Area*, Vol.40, No.3, pp.383-392.
- Moss, P. 1993. “Focus: Feminism as Method.” *Canadian Geography*, Vol.30, No.1, pp.47-49.
- Moss, P. 2002. *Feminist Geography in Practice: Research and Method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Mountz, A. 2002. “Feminist politics, immigration, and academic identities.”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9, No.2, pp.187-194.
- Mullings, B. 1999. “Insider or outsider, both or neither: some dilemmas of interviewing in a cross-cultural setting.” *Geoforum*, Vol.30, No.4, pp.337-350.
- Nagar, R. 2002. “Footloose researchers, ‘traveling’ theories, and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 feminist praxis.”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9, No.2, pp.179-186.
- Nast, H. 1994. “Opening remarks on ‘Women in the Field.’”,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46, No.1, pp.54-66.
- Peake. L. and D. A. Trtoz. 1999. *Gender, ethnicity and place: Women and Identities in Guyana*. London: Routledge.
- Radcliffe, S. A. 1994. “(Representing) post-colonial women: Authority, difference and feminisms.” *Area*, pp.25-32.
- Reed-Danahay. D.(Ed.)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New York: Berg.
- Rose. G. 1997. “Situating knowledges: positionality, reflexivities and other tac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1, pp.305-320.
- Smith. S. J. 1988. Constructing local knowledge: The analysis of self in everyday life. In Eyles. J. and Smith. D.(Eds.), *Qualitative Methods in Human Geography*, Cambridge: Polity Press, pp.17-38.
- Staeheli, L. A. and V. A. Lawson. 1994. “A discussion of ‘Women in the Field’: The politics of feminist fieldwork.”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46, No.1, pp.96-102.
- Temple. B. and A. Young. 2004. “Qualitative research and translation dilemmas.” *Qualitative research*, Vol.4, No.2, pp.161-178.
- Van Nes. F., T. Abma. H. Jonsson, and D. Deeg. 2010. “Language differences in qualitative research: is meaning lost in translation?”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7. No.4, pp.313-316.
- Warren. C. A. B. 1988. *Gender Issues in Fiel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Widdowfield. R. 2000. “The place of emotions in academic research.” *Area*, Vol.30. pp.199-208.
- Wolf, S. M. 1996. “Introduction: gender and feminism in bioethics.” *Feminism & bioethics: Beyond reproduction*, pp.3-43.